

현대시에 투영된 이방인과 다문화

고 봉 준*

차 례

- | | |
|------------------------------------|-----------------------|
| 1. 다문화 담론과 이동의 시대 | 4. 노동의 세계적 이동과 다문화적 인 |
| 2. 하위주체와 재현의 불가능성 | 류의 탄생 |
| 3. 이주자, 현대 세계의 호모 사케르:
하중오의 시편들 | 5. 다문화 담론의 문제점들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시에 투영된 이방인과 다문화의 흔적을 살피고, 그 재현 방식과 맥락들이 지닌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지구적 확장으로 인해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 수입국의 하나가 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다문화적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문학적 상상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0년 이후에 이방인/이주자가 등장하는 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불편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하나는 '다문화'가 현실을 지시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 수준의 담론으로 기

* 경희대

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주자의 삶을 재현하려는 문학적 시도들이 대부분 예술적으로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이다. 각각 ‘담론’과 ‘예술’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두 문제는 사실상 하위주체에 대한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압축될 수도 있다. 이는 하위주체를 재현하려는 문학적 시도의 실패와 좌절이 시인 개인의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장르의 특징과 재현불가능이라는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이 글에서는 한국 현대시에 이방인/이주자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현실적 배경과 그것이 문학장의 변화를 추동하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국문학에 있어서 이방인/이주자의 등장은 단순한 소재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state)=자본(captia)=네이션(nation)’의 삼위일체에 의해 지탱되어온 문학장 자체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근대문학이 ‘상상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방인/이주자의 등장이 특징인 21세기의 문학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다문화’의 도래가 문학에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요청은 정치철학적 물음, 즉 윤리적 성격을 띠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학적 물음, 즉 하위주체의 재현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글은 서발턴에 대한 스피박과 존 베벌리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 문제가 아닌 선(善)한 의도와 미학적 균열 사이의 이율배반을 중심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이것은 이방인/이주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의 힘이 강할수록 예술적 생산물의 수준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에 출간한 하종오의 시집들, 특히 그것들의 미학적 실패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종오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장석주, 강연호, 김사이, 정현중 등의 시를 비교 고찰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주자를 하종오와는 다른 맥락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정현종의 시가 비교적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주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가장 추상적이었다. 이는 하위주체의 문학적 재현이 구체성을 떨수록 문학적 효과를 획득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현과정에서 작가들이 겪게 되는 이 난점을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문제의식에 견주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문학연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다문화 열풍은 문학적 재현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이 글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는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적하고, 어렵פות하게나마 이방인/이주자의 등장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문제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재현, 하위주체, 이방인/이주자, 다문화, 호모 사케르, 근대문학, 신자유주의

1. 다문화 담론과 이동의 시대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시하는 다양한 맥락들과 길항하면서 진화한다. 그 진화의 방향은 대개 문학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규제적 힘으로서의 현실과 그것을 돌파하려는 문학적 상상력의 해방에의 욕망이 형성하는 벡터(vector)에 의해 결정된다. 문학 작품은 현실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않지만, 동시에 현실과 무관하지도 않다. 이런 까닭에 특정 시기의 문학적 상상력에는 그 시대 전체가 걸려 있는 물음이 투영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물음은 때로 ‘문학’ 자체의 성격 변화를 강제하기도 한다. 문학의 역사성이란 바로 이 물음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현실’의

중핵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자’와의 일상적 마주침이다. 타자, 이방인, 마이너리티, 호모 사케르, 다문화 같은 개념들이 문학연구의 전면에 등장한 현상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타자’와 ‘다문화’ 담론은 어느덧 문학과 문화 분야의 중심적인 논제가 되었는데, 이는 이것들이 단순한 소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학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타자’와 ‘다문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현실의 등장은 한국문학의 성격 변화를 주도하는 근본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자본주의의 성격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자본’의 성격 변화가 문학적 상상력의 변화를 규정하는 최종심급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 과정에서 근대 ‘문학’이 ‘국민(국가)’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가라타니 고진의 지적처럼 근대문학이 ‘국가(state)=자본(captia)=네이션(nation)’의 삼위 일체와 일정한 거리두기 속에서 전개되어 왔듯이, 최근의 한국문학이 ‘이방인’의 등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문학 바깥의 ‘현실’의 변화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 특히 ‘이방인’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알다시피 자본주의는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 현재의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민족국가의 경계 내부의 자본주의와 이에 기초한 국제 무역(주권 민족국가들 간의 교역)이 일반적인 형태였고, 이후 ‘제국’과 ‘식민지’라는 양극을 통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배의 형식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지분’과 ‘노동’ 모두에서 민족/국가의 흔적을 지워버림으로써 그것들의 지구적 이동을 촉발시켰다.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 광범위한 지구적 이동의 시기에 유럽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관용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적 관용 담론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범역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적 형태는 다문화주의다.”¹⁾ 그래서 타자의 특이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존중은 전

1)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05, 352쪽.

도된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단언하는 유럽인들의 중심성(신자유주의에서는 자본의 중심성)을 숨기고 있다는 비판과, 타문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용’ 또한 “항상 지배의 또 다른 표현이며, 개인적 덕목으로서의 관용 역시 이러한 비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²⁾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에서 타자의 특이성은 그들이 실재적 타자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생태적 지혜와 매혹의 의례 등등을 지닌 무균적 타자”일 경우에만 관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러한 태도를 ‘주권의 선한 얼굴’이라고 명명했다.

관용은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비록 유대교와 이슬람교 역시 이 개념을 전유하는 듯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적 자비입니다. 관용은 늘 [힘이 곧 정의다]라는 [최강자의 논거] 편에 있습니다. 관용은 주권의 대리 보충적 흔적이죠. 주권은 오만하게 내려다보면서 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가게 내버려두마, 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야, 내 집에 네 자리를 마련해두마, 그러나 이게 내 집이라는 건 잊지마…… 관용은 바로 이와 같은 주권의 선한 얼굴입니다.³⁾

소위 ‘관용의 문턱’이라고 불리는 배제/포함의 착종상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그들은 - 타자, 이방인, 소수자 등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 ‘우리’라는 유기체적·자연주의적 정치학에 의해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거나, ‘인권’이라는 추상적 가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정치적 약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이방인/이주자/소수자/다문화에 대한 문학적 담론과 재현 전략은 두 가지 난제, 즉 배제/포함의 착종을 넘어서는 인식론적·존재론적 시각의 확보와 그것의 윤리적·미학적 재현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 난제가 분리될 수 없기에 인식론적·존재론적 정당성으로 윤리적·미학적 재현 문제를 해결할 수

2) 웬디 브라운, 이승철 옮김, 『관용』, 갈무리, 2010, 285쪽.

3)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김은주·김준성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32쪽.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있다. 이 난제들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문학(시)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주권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 없이 지구적 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긍정해버릴 때, 문학은 현실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정치’의 미학화)로 전락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시장독재의 성격을 띤 신자유주의가 지구적 현실로 대두되고, 자본과 노동이 ‘국제(inter-nation)’라는 근대적 틀을 넘어 ‘세계’라는 초민족·초국가적 규모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짐으로써 국가나 민족 같은 근대적인 공동체/문턱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국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위축됨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인종, 문화적 주체와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이 급증했다. 지난 10여 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비롯하여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따른 ‘이동’과 ‘혼종’의 경험을 담론화하거나,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력’과 ‘결혼’에 의한 이주자의 급증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주자와의 대면이 더 이상 예외적인 경험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굳어짐에 따라 이주자의 삶을 형상화하는 일은 문화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2. 하위주체와 재현의 불가능성

지금까지 지구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사건의 담론화는 마이너리티, 혼종성, 다문화주의의 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다문화주의 담론은 문학연구는 물론 교육과 행정 영역까지 확장되어 이주자 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담론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적 현실은 단일민족주의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갈등하고 공

존하는 다문화적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의 갈등과 인정⁴⁾, 국민국가적 시민권과 다문화주의 시민권 사이의 문제⁵⁾ 등은 이러한 다문화적 상황에서 흔히 제기되는 정치철학적 물음들이다. 유럽의 정치철학에서 그것은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윌 킴리카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논쟁으로 드러났다. 이 논쟁에서 공동체주의는 ‘선(善)’을 강조했고, 자유주의는 ‘권리’를 강조했다. 이때 등장하는 다문화주의란 “민족국가를 전제로 문화집단 간에 문화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⁶⁾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서, 한 국가 내부에서 확인되는 다수적 문화와 소수적 문화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작되어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계기로 상이한 민족문화들 간의 관계문제로 확대되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호주와 캐나다가 도입한 이래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 정책의 철학적 기초였다. 이는 서구에서 이민자에 대한 동화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종족, 인종, 종교, 문화집단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성격을 띠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인종과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문화, 비주류문화 등 여러 가지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주류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한 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려는 사상이나 이념을 일컫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타자의 문화를 배척하거나 강제적으로 동화시키는 대신 이질적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타자성의 긍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타자성의 긍정/인정이라는 다문화주의의 이상은 최근 유럽 정치권력이 보수화되

4) 이에 대해서는 파트릭 사비단, 이산호·김휘택 옮김, 『다문화주의』, 경진, 2012 참고.

5) 이에 대해서는 윌 킴리카, 황민혁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참고.

6) 박병섭,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21집, 2011.4, 423쪽.

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수반들은 다문화주의의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강력한 ‘동화’와 ‘통합’에의 의지를 밝혔다. 가령 캐머런 영국 총리는 ‘관용’ 대신 ‘근육질의 자유주의’를 강조했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그동안 이민자의 정체성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정작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으며,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문화의 개념을 채택해 서로 행복하게 살자는 경향이 우리를 지배해 왔지만 이 개념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에 근거해 캐머런은 모든 이주자의 영어 사용 의무화를 위해 학교에서 영국 문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했고, 메르켈도 이주민들에게 독일어를 배울 것을 요청했다. 다문화주의가 사회를 통합이 아닌 분리로 몰아감으로써 점차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조너선 섉스(Jonathan Sacks, 1948~)의 지적⁷⁾도 이러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섉스의 비판은 ‘차이’를 ‘차별’로,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인정을 해당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로 해석함으로써 다문화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적 상대주의와 동일시한다. 실제로 다문화주의가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감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의 핵심 문제는 이러한 책임감의 부재가 아니라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이 설정하고 있는 문화들의 대칭적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흔히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지칭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주자의 문화와 한국인의 문화는 한

7) 조너선 섉스는 『사회의 재창조』에서 사회 모델을 시골 별장으로서의 사회, 호텔로서의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으로서의 사회로 구분한다. 이 책에서 섉스는 1950년대의 영국은 시골 별장 모델이 지배했고, 1950년대 말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손님과 주인,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다문화주의가 채택되면서 모두가 호텔의 투숙객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한다. 호텔로서의 사회=다문화주의는 사회에 대한 애착심이나 책임감이 생길 수 없는 사회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너선 섉스, 서대경 옮김, 『사회의 재창조』, 말글빛냄, 2009 참고.

번도 동등한 위상을 구가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라는 유럽적 다문화주의의 수사조차 한국에서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의 문화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터부시되거나 호기심의 대상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며, 그들의 문화가 이 사회에서 정당한 문화적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한국 문화가 강력한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자들의 문화가 몇몇 계토적인 공간을 거점으로 산개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주변적인 문화들마저 강력한 동화주의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동화주의의 상황을 ‘다문화’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주자에 대한 인식론적·존재론적 시각의 문제와 연관된다면, 아래에서 살펴볼 문학적 형상화는 윤리적·미학적 재현의 문제와 연관된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 이주자가 등장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자 문제를 형상화한 현대시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특히 문학적·예술적 성취에서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이 문제는 시인(예술가) 개인의 재능 문제로 평가되지만, 하위 주체를 재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포스트콜로니얼적 물음이 지시하듯이 여기에는 재능 이상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알다시피 이주자의 문제를 다룬 시 작품은 매우 드물고 그 수준은 낮은 것이 우리의 문학적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자기 고백적 발화라는 ‘시’의 전통적 발화법과 관계가 있다. 시인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을 언어화하는 것이 시 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감안하면 현대시가 이주자를 형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설령 이주자의 삶을 형상화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다 할지라도 이념적 당위나 선(善)한 의지 같은 준(準)이데올로기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

의 질문이 암시하듯이 하위 주체인 이주자에게 문학적 자기표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위 주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전적으로 “말하는 서발턴에 대한 복화술”⁸⁾을 수행하는 한국인-시인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현의 체제 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재현[대표]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재현[대표]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스피박이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을 통해 비판했듯이 엘리트 지식인이 하위주체를 ‘위하여’ 쓰는 행위가 실제로는 하위주체에 ‘대하여’ 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하위주체에 호의를 보이며 그들을 대변하려는 지식인과 엘리트들의 행위가 그 의도와 상관 없이 하위주체를 대상화하거나 자신들의 지식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존 베벌리 역시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문학이 오히려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포스트콜로니얼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스피박은 하위주체가 그 정의 자체로 하위적·하층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하위주체가 아카데미의 지식(그리고 ‘이론’)으로는 적절하게 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카데미는 적극적으로 하위주체성을 생산하는 실천 행위(하위주체성을 재현하는 행위를 통해 하위주체성을 생산한다)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 하위주체를 ‘타자화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 상아탑이 가진 지식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위주체를 온전히 재현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⁹⁾

하위주체는 스스로를 재현[대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만약 하위주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미 하위주체가 아니다. 때문에 하위주체는 이미-항상 하위주체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일반적으로는 지식인)에 의해 재현[대표]되는데, 이 재현의 과정이 재현될 수 없는 대상을

8) 로잘린드 C.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58쪽.

9) 존 베벌리, 박정원 옮김,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44쪽.

재현하려는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애초의 의도와 달리 하위주체를 ‘타자화’한다는 것, 동시에 지식인 엘리트에 의한 재현 과정이 선(善)한 의도와 상관없이 엘리트의 지식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재현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적 문제제기이다. 스피박이 ‘재현’을 정치학과 헤게모니 문제로 이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하위주체에 대한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문제는 또한 하위주체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문학이 가지는 한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즉 이주자를 형상화한 시 작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도 이러한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주자의 존재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철학적 논쟁과 달리 하위주체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대다수는 타자에 대한 주체의, 하위주체에 대한 지배주체의 윤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기 쉽고, 이때 지배주체-지식인은 하위주체를 재현하는 행위의 상징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하위주체를 재현하는 문학 작품들이 대개 하위주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식의 동일성을 반복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차이의 ‘권리’를 관용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의 상징성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일성의 반복과 확장이 ‘이주자’의 존재론적 특이성을 포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주자의 자기-표현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성격의 것이라는 데 있다. 때문에 흥미롭게도 하위주체에 대한 문학적 재현과 시적 형상화는 반복적으로 그 선(善)한 의도와 어긋날 수밖에 없으며, 하위주체는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문학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아래에서는 오랫동안 이주자 문제에 천착해온 하종오의 시와, 비교적 최근에 창작·발표된 시 작품에서 이주자가 형상화되는 방식을 살펴보려 한다.

3. 이주자, 현대 세계의 호모 사케르: 하종오의 시편들

하종오는 2000년대 시단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코시안, 탈북자 등 ‘타자’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시인이다. 그는 ‘코시안’의 삶을 그린 『반대쪽 천국』(2004), 신자유주의적 노동 시장의 변화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고발한 『국경 없는 공장』(2007),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는 민족적·인종적 차별을 비판한 『아시아계 한국인들』(2007), 이주자와 본국에 남은 가족의 형상화를 통해 ‘이주’라는 현대적 문제를 제기한 『입국자들』(2009), 아시아적 주체에 국한되어 있던 문학적 시선을 지구 전체로 확장시킨 『제국』(2011),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분단 문제를 조망한 『신북한학』(2012)과 『남북주민보고서』(2013), 지구 전체를 배경으로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한 『세계의 시간』(2013) 등처럼 하위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적 상상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문학적 작업은 한 마디로 이방인에게 ‘문학적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실험의 일환이다. 또한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달라진 삶의 조건과, 그 변화가 우리 시대에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의 형식으로 담아내려는 문학적 응전의 산물이다.

하종오의 시에서 이주노동자, 코시안,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괄하는 ‘이주자/타자’의 형상은 이동성(Mobility) 자체가 삶/노동의 숙명적 조건인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의 ‘인간’을 가리키며, ‘고향/근거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정당한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한 현대판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별거벗은 삶과 연관된다. 그들은 상징적 경계선 밖에 위치한 타자들이다. 때문에 항상 상징적 경계의 ‘안’으로 동화되거나 배제/추방되어야 할 이방인들로 간주되며, 초대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온 경쟁적 대상이라는 적대적 시선의 포로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권자가 호모 사케르에게 했듯이, 실정법의 적용이 거부되고, ‘인권’을 포함

한 일체의 권리가 부정되며, 법적 정의의 철회를 통해 배제가 정당화되는 지점에 놓인다. 물론 이러한 배제는 주권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권자의 영역을 선명하게 만들거나 강화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이들은 현대의 대표적인 ‘인간쓰레기’이다. 하중오의 시편들은 이들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극단적인 배제와 차별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별거벗은 삶에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돌려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시인은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되고 있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어 모든 ‘입국자’가 우리와 동일한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과정은 시선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어둠으로 간주되던 어떤 세계에 ‘시’라는 새로운 조명을 드리우는 과정이며, 비(非)가시적 존재라는 이유로 ‘망각’의 대상이었던 ‘입국자’의 삶을 정당한 ‘인간’의 범주로 다시 끌어들이는 문학적 투쟁의 일환이다.

아비가 젊어서 떠났던 곳에 딸이 늙어서 돌아오니
 조선족이라고 했다
 늙은 딸이 돌아온 곳에 따라온 젊은 외손녀도
 조선족이라고 했다

그 모녀는 지하 셋방에서 살았다
 새벽에 어머니가 공장에 일 나가고 딸이 들어오고
 저녁에 딸이 술집에 일 나가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서로 들고 나는 이부자리에서
 서로 남긴 체온 느낄 때만 조선족이었다

그 모녀가
 아버지의 고향 외할아버지의 고향 처음 찾아왔을 적에
 직접 지어서 지냈다던 움집도
 배가 고파 두레박으로 물 퍼 마시고

고개 처박고 올었다던 깊은 우물도 찾을 수 없었다
뱀장어 잡아 구워 먹었다던 붓도량은 뚱개지고 거기서 고속도로가 내
달리고 있었다

그 모녀는
아버가 젊어서 딸아이 업고 떠났던 곳은
먹을 게 모자라 못 나눠 먹던 데였지만 딸이 늙어서 외손녀 데리고
찾아온 곳은
먹을 게 남아돌아도 나눠 먹지 않는 데라는 걸 알고는
조선족에게도 되돌아가기 위해
밤낮 번갈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하중오, 「아버가 떠난 곳 딸이 돌아온 곳」 전문

이 시에서 ‘탈향-귀향’의 이중적 과정은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되는 사건으로 등장한다. “아버가 젊어서 떠났던 곳에 딸이 늙어서 돌아오니”라는 구절처럼 이 시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조선족 여성들의 입국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다. 모국(母國), 즉 부모의 나라에 온 조선족인 ‘늙은 딸’과 ‘젊은 외손녀’의 삶은 그러나 순탄하지 않다. ‘지하 셋방’이라는 열악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 모녀는 “새벽에 어머니가 공장에 일 나가고 딸이 들어오고/저녁에 딸이 술집에 일 나가고 어머니가 들어왔다”라는 구절처럼 한 공간에서 살면서도 얼굴을 맞대는 경우가 없다. 그들은 이부자리에 남은 ‘체온’으로 서로를 느낄 뿐이다. 두 조선족 모녀가 머물고 있는 지금-이곳은 그녀들은 물론, 그녀들의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에게도 불행한 공간으로 각인된다. 일찍이 그녀들은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고향’인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의 전수과정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관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이곳이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면서 조선족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한국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은 아버와 외할아버지의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들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폐허 위에 정복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전부이다. 그렇다면 ‘고향’의 부재가 곧 문명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인은 이러한 문명의 발전이 인간 관계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말하려는 듯하다. 아버가 떠났던 ‘고향’은 비록 가난한 곳이었으나 나눌 줄 아는 공동체적 세계였지만, 모녀가 돌아온 아버의 ‘고향’은 더없이 풍요롭지만 결코 나누지 않는, 오직 개인들 간의 무한한 경쟁만이 삶의 유일한 원칙인 곳으로 변해버렸다. 여기에서 시인은 한국을 찾아온 입국자들의 시선을 통해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세계를 비판하고 있다.

필리핀인 어머니는 자신을 닮았으나/아버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므로/아들을 한국인이라고 믿었다//미나리짱 옆 길가에 주저앉은 아들은/미나리 줄기 꺾어 씹어 삼키고/뒤따라온 어머니는 앞에 섰다//점심 때가 되어서 따뜻해지니/나란히 앉아 햇볕 쬐던 어머니와 아들은/다시 한번 색깔이 같은 피부 서로 보았다//어미가 한국말 잘하지 못하니/자식도 한국말 잘하지 못하여/어미도 말이 없고 자식도 말이 없었다//어미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 데리고/모퉁이 돌다 하늘 향해 한숨쉬고/마을 길 걷다 땅 향해 한숨쉬었다//길가 잡풀 옆에 잠시 쪼그려 앉은 어머니는/먹을 수 없는 미나리아재비 물끄러미 보고/아들은 터벅터벅 걸어갔다//아버가 한국인인데도 자신의 아들이/한국인을 안 닮았다 해서 따돌리는 것이/필리핀인 어머니는 너무 슬펐다

...(중략)...

베트남에서 시집은 젊은 아내는/한국어 이름 지어주기 바랐다/폴도 국경 넘으면 그 나라말로 불리고/나무도 국경 넘으면 그 나라말로 불리고/별레도 국경 넘으면 그 나라말로 불리는데//한국인 남편은 모른 척했다/한국어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고/왜 베트남어 배우려 하지 않는지/아이에게 한국말 가르쳐야 하고/베트남어 가르치면 왜 안 되는지/베트남인 아내는 알 듯 모를 듯했다//한국 남자한테 시집와서 살겠다면/한국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나/베트남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면/베트남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나/서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도/베트남인 아내는 입 다물곤 했다//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어 몰라도/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어 몰라도/당장에 잡초 베러 논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살이 뜨거워지는 햇볕 보고는 같이 알아차리고/이따가 쉬러 나무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은/옷 적시는 땀 보고는 같이 알아차리고/나중에 별레 죽일 농약 치러 밭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멀리서 몰려가는 새떼 보고는 같이 알아차렸다

- 하중오, 장시 「코시안리」부분

2007년에 출간된 『아시아계 한국인들』에 수록된 이 시는 “가난한 송출국에서 잘 사는 유입국으로 이주”하여 자본주의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계 한국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장시(長詩)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코시안(kosian)’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등에서 이주해온 여성들, 즉 아시아계 한국인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등장은 단순한 외국인의 방문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들은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결혼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한국인이 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은 물론 언어와 혈통마저도 뒤섞이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혼종에 의해 출생하는 혼혈들은 자신들의 부모(대개는 모계)가 겪어야 했던 차별보다 훨씬 심각한 폭력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의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 지점에서 이주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법=정의’라는 법실증주의의 논리가 내국인-시민권자에게만 국한되면 일면적인 것임을 폭로한다. ‘이주자’와 ‘이방인’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약소자나 소수자의 표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용시에서 비극적 삶의 원인은 필리핀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다. “필리핀인 어머니는 자신을 닮았으나

/아버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므로/아들을 한국인이라고 믿었다”. 한국사회는 유독 혼혈인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적 믿음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혈통의 단일성은 곧 순수하고, 혼혈은 불순하다는 인종적·혈통적 편견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결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시안 가족 내부의 언어 상황이다. 대개 이주자들은 한국어에 서툴러 한국인 남성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또한 부모들과의 원만한 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시에서 필리핀 출신의 엄마를 둔 아이는 추측컨대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또래의 아이들보다 한국말이 서툴렀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엄마의 언어, 즉 모어에도 능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엄마와 아이가 공유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의 언어적 관계는 크게 위축된다. “어미가 한국말 잘하지 못하니/자식도 한국말 잘하지 못하여/어미도 말이 없고 자식도 말이 없었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을 다문화 사회라고 말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문화적 환대를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러나 실상 한국의 이주자 정책은 강력한 동화주의의 일변도이다. 한국사회의 절대 다수는 암묵적으로 이방인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 한다는 동일화의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허용하거나 이해하려는 태도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자랑스러워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 폭력적 동일화는 사회와 직장, 심지어 이방인을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한 가족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이처럼 문화와 권력의 비대칭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한국의 남성들은 아내가 한국어에 서툰 것을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아내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아이가 모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오직 부계의 언어만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과, 이주 여성을 엄마로 둔 아이들은 ‘언어’의 차원에서는 항상 결핍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 “한국인 남편은 모른 척했다/한국어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고/왜 베트남어 배우려 하지 않는지/아이에게 한국말 가르쳐야 하고/베트남어 가르치면 왜 안 되는지/베트남인 아내는 알 듯 모를 듯했다”. 이러한 문화와 권력의 비대칭성이 결국 ‘결혼’이라는 중요한 입사(入社)를 ‘매매’의 한 종류로 타락시킨다. 2000년대 이후 하종오의 시세계는 ‘아시아계 한국인들’에서 ‘탈북 디아스포라’에 이르기까지 삶의 근거지에서 강제로 추방되어 낯선 땅에 이식된 사람들의 불행한 삶을 뒤쫓고 있다.

베트남에서 온 조리사 썬 씨
한국 공장에 취업해 간
오빠가 보고 싶다 말하고
필리핀에서 온 미장공 알로로드 씨
한국 가정에 가정부로 간
누이가 보고 싶다 말한다

쿠웨이트 공사장 주변에서 지내면서
영어 몇 마디 뜻이 다 통하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중장비기사 노인철 씨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다가 묻는다
같은 나라말을 쓰는데도 함께 말하지 않고
이목구비가 닳았는데도 마주치지 않으려하는
저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냐고

북한에서 온 막일꾼 리성주 씨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다가도
자신이 지나가면 힐끔거리는 저들 중

한 명이 한국인인 줄은 알아차리지만

- 하종오, 「세계의 시간」 부분

최근 하종오는 지구적 차원에서 삶의 연대를 상상하는 시적 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북한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를 상상하고, 「국가」와 「권력」의 매개 없이 남북한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소유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함께 노동하지 않고서는 공존”(〈시인의 말〉, 『세계의 시간』, 도서출판 b, 2013)할 수 없다는, 그 공존이 분단을 극복하는 성취라는 신념을 표현한다. 이를 위해 그는 시적 공간을 남한과 북한이 아닌 제3의 국가로 설정한 후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일종의 판타지를 실험한다. 인용시에 등장하는 “쿠웨이트 공사장 주변”이 바로 그런 공간이다. 베트남 출신의 쉰언, 필리핀 출신의 알로로드, 한국 출신의 노인철, 북한 출신의 리성주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은 흥미롭게도 쿠웨이트이다. 쿠웨이트 국적의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음으로써 시인은 이곳을 일종의 중립지대처럼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출신 국가와 근무지와 직종을 생각하지 않고/어디서든 맛있게 음식을 먹는/모든 각자의 한 시간”인 ‘점심 시간’을 상상한다. 국적, 출신지, 직업 등 인간의 행동과 사상을 제약하는 일체의 모든 조건들을 삭제시킴으로써 시인은 이들을 생물학적인 인간 또는 계몽주의가 꿈꾸었던 동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접근시킨다. 이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밥을 먹는 장면이야말로 시인이 상상하는 세계화의 참모습이고 탈분단의 가능성일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설정은 필리핀 출신의 이주자 썬샤이와 한국 출신의 이주자 최주철이 쿠웨이트의 슈퍼마켓에서 함께 머무는 「계산대」, 네팔 출신의 그왈라와 북한 출신의 노동자가 카타르의 건설 현장에서 ‘한국말’을 매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한국말」처럼 시집 『세계의 시간』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의 의도와 달리 이러한 설정은 인물들 모두가 이방인으로서 만날 경우에만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밥을 먹거나 잡담을 주고받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일 뿐임을 드러낸다. 즉 이러한 설정은 쿠웨이트인이나 카타르인이 등장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순간 위태로워지고, 그들이 노동, 정치, 종교 등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시적 실험이 오직 균열된 현실을 봉합하는 판타지로서의 기능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4. 노동의 세계적 이동과 다문화적 인류의 탄생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혈통에 근거한 민족적 가치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타자성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과 배제를 통해서, 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혈통을 비가시적 영역으로 밀쳐내는 허구성을 통해 지탱되어온 측면이 크다. 우리의 믿음과 달리 한국은 그 내부에 적지 않은 이질적 요소들을 거느린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은 굳이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다수의 혼혈아들, 특히 미군 주둔 이후에 급증한 다양한 혈통의 혼혈아들은 70년대 이후 문학의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어 왔다. 1970년대 후반에 창작된 김명인의 「동두천」 연작이 그 증거이다. “내가 국어를 가르쳤던 그 아이 혼혈아인/엄마를 닮아 얼굴만 희었던/그 아이는 지금 대전 어디서/다방 레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연애를 하고/퇴학을 맞아 고아원을 뛰쳐나가더니/지금도 기억할까 그때 교내 웅변대회에서/우리 모두를 함께 울게 하던 그 말 한 마디/하늘 아래 나를 버린 엄마보다는/나는 돈 많은 나라 아메리카로 가야 된대요”(「동두천 4」)라는 진술로 시작되는 이 시는 아마도 한국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의 상징적인 흔적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다문화적 흔적이 대개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험의 산물이었던 데 반해, 최근의 다문화적 흔적은 주로 결혼

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기원하는 측면이 크다.

십 년 전 거리를 메운 아이들은 온데간데없고
십 년 전 별집은 그 자리에 있고
출렁거리는 술집은 여전하다

구로공단 한구석 조선족 거리를 걷다가
가을 한낮 햇살이 따가워
눈을 크게 치켜떴을 때
문득 구로공단이 달라져 있었다
어릴 적에는 하얀 스카프에 푸른 작업복 무리가 수상했고
스무 살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아이들이 낮설었고
지금도 이곳에 있는 내가 낮설다
언제부터일까
이방인들 틈에 내가 이방인같이 보이는 이곳
어느 사이에
국적도 피부색도 방해가 되지 않는
낮선 것을 느끼는 동시에 낮익어 있는
정체 모를 이 끈적함
이국 채소가 식당이 간판이 언어가 내 얼굴을 덮고
공단 울타리를 에워싼 노동자 연대의식이
연례행사처럼 마음속을 드나들고
쿠르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연변 구로
그래도 이 거리가 한국이 좋다고 하는 그이들과
삼삼오오 비켜서서 무관하게 밥을 먹고
아파트형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십 년 전 꽃무늬 치마 팔랑거리며 저만치 걸어가는
내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찰나

- 김사이, 「이방인의 도시」 전문

구로공단의 변화를 배경으로 거느리고 있는 김사이의 시들은 ‘노동력’

의 국제적 이주가 빚어낸 변화를 다문화적 시각으로 포착한 중요한 증거이다. 시인의 시선에 비친 2000년대의 구로공단은 “30여 년 전 산업화의 발과 손이었던/여공은 노동운동사의 유물로 사라지고/사각 콘크리트 건물들이 자본의 기동처럼/위풍당당하게 우뚝 솟은 이곳엔/여공의 제복을 벗고 발가벗겨진 여성이/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도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이/돈 벌러 홀린 듯이 모여드는데”(「달의 여자들」)처럼 노동운동과 생산의 상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가 흘러넘치는 다문화의 거리로 바뀌었다.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궁핍하고 위태롭지만, ‘노동’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김사이의 시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노동자문화회가 한 시절 숨을 쉬었던 곳/푸른 물결이 출렁거렸던 곳/그 많던 노동조합은 어디로 갔는지”라는 실존적인 물음을 가져간다. “조선족 거리가 생겨나고 중국유학원이 늘었다/당구장이 줄어들고 커피숍이 사라졌다/노가다꾼들과 아이들 쉼터였던 만화방들이 문을 닫고/동시상영 영화관도 끝내 간판을 내렸다/열기 대신 조선족 도우미들의 노랫소리가 흥청인다”(「출구」)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의 등장으로 한국의 노동환경은 비약적으로 바뀌었다. ‘노동’과 ‘자본’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갈등은 이면에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차이라는 또 다른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인용시의 화자는 지금 이 변화의 중심인 “구로공단 한구석 조선족 거리”를 걷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변화를 “어릴 적에는 하얀 스카프에 푸른 작업복 무리가 수상했고/스무 살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아이들이 낮설었고/지금은 이곳에 있는 내가 낮설다”처럼 자신의 터전이었던 곳에서 느껴야 하는 이방인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때는 고향 같았던 그곳에서 시인은 지금 ‘타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구로공단은 “내가 이방인같이 보이는” 이방인의 도시가 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이끌었던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쿠르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연변”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한때나마 “내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국경은 끊임없이 유동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사막의 지형이 달라져 있다.
다리를 건너라, 다리 건너
길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비둘기들에게도
정의가 있다.
김밥을 먹는 너와 네 마음 사이에는 다리가 있다.
제발 고향을 지르지 마라.
소문은 이데올로기를 잉태하는 자궁이다.
얼룩말에게는 얼룩말의 길이 있다.
저것은 검은 줄무늬인가,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인가.

하루라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가장 잘 여문 밤에 별레가 든다.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른 것은 괴물이다.
이게 사람 사는 꼴이나? 온몸이 시너를 뒤집어쓰고
소신공양을 하는 젊은 부처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지개는 착시현상이다.
네 감각을 의심하라.
물속에서 모든 손가락은 휘어진다.
꺼내 보면 멀쩡하다.

오늘은 이미 내일이다.
먼 곳에 있는 것들은 믿지 마라.
네 식도로 넘어가는 것들만 믿어라.
저 세계를 낮설게 보고
낮선 세계에서 낮익은 얼굴로 살라.

- 장석주, 「이주노동자들」 부분(월간『현대시』2012년 2월호)

장석주의 시는 구체적인 삶의 형상 대신 이주자/이방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근원을 적시하고 있다. 이 시에서 “국경은 끊임없이 유동한다/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사막의 지형이 달라져 있다.”라는 진술은 노동과 삶의 공간적 형식이 달라진 세계화의 시대를 상징한다. 하여, 노동력은 자본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선진국에서 그 이하의 국가로 흘러들게 마련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자본과 노동의 자연스러운 지구적 흐름이다. 그러나 “소문은 이데올로기를 잉태하는 자궁이다”라는 진술처럼 이방인의 자격으로 이곳에 도착한 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소문’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실제로 타자에 대한 공포와 혐오의 절대적인 부분은 가해자의 무의식이 투영된 소문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편견에 대해 불쾌하고 부당하게 여기지만, 소문은 편견을 구미에 맞게 바꿔놓는 재주가 있다.”¹⁰⁾ 이 소문의 세계에서 ‘나/우리’와 다른 것은 ‘괴물’로 인식된다. “너와 나는 다르다./다른 것은 괴물이다.” 모든 다른 것이 ‘괴물’로 인식되는 세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옥으로서의 현대이다. 이 소문은 마치 끈계 썬가락이 물속에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의 일종이지만,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착시의 색안경을 쓰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진리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절망한 몇몇 이방인들은 ‘소신공양’의 분신을 선택한다. 그것은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라는 외침이 암시하듯이 인간 이하의 삶에 대한 무언의 항의이다.

자동차로 건너가는 김제 만경 들판
 무리를 이룬 겨울 철새들이
 2월의 하늘을 덮었다 걷었다 한다
 이제 곧 시베리아인지 어디로인지 떠나려는 듯
 보따리를 썼다 풀었다 부산하다
 나는 방금 지나쳐온 길가 현수막에서

10) 니콜라스 디폰조, 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69쪽.

절대 도망 안가는 베트남 처녀를 되새긴다

문득 나 역시 늘 도망치며 살았다는 생각
사람을 피해 떠돌았다는 생각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민족 같다
연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인지
혹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인지
사방팔방 북상과 남하의 갈림길에서
잠시 지쳐 머물다가
다시 떠날 채비에 분주한 철새 같다

하기는 이 생에서 디아스포라 아닌 자
어디 한번 나와 보라고 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해
들관 가득 철새들이 모여 시위를 한다
달리는 차창에 성긴 눈발 몇 점
돌멩이처럼 달려든다
간간 들불 오르는 2월의 김제 만경 들관을
아득히 뗏장처럼 물고 가는 철새들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다르지 않다
멀리 푸릇하게 오른 보리싹이
질끈 눈감고 제 발을 꺾꺾 눌러 밟는다
뿌리를 깊게 내려
텃새로 남거나 텃새를 부리거나
모쪼록 베트남 처녀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싶다
얼마 전에 한국의 시인 작가들은
민족을 떼기 위해 설문과 집회를 열었다

- 강연호, 「디아스포라」 전문(월간 『현대시』2008년 4월호)

강연호의 시는 이주자들을 디아스포라(diaspora)로 포착하고, 나아가 떠돌음과 이동의 운명을 인간 본연의 실존적 조건으로 확장시켜 사유한다.

이러한 시적 확장과 실존적 추상의 방식은 김태형의 「diaspora」(월간 『현대시학』2006년 7월호)와 오은의 「diaspora」(시집 『호텔 타셀의 페이지들』)에서도 유사하게 목격된다. 인용시의 장면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보자. 먼저 시인은 2월 어느 날 자동차로 김제 만경 들판을 지나다가 “무리를 이룬 겨울 철새들”과 “절대 도망 안가는 베트남 처녀”라는 현수막을 목격한다. 그것들은 ‘이동’의 운명을 띠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이동’의 운명에 자신의 과거를 포괄으로써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민족 같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킨다. 이처럼 시인이 자신을 이민족으로 감각하는 순간 시인과 “연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인지/혹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인지”에서 온 이방인들은 유사한 존재가 된다. 그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두 diaspora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실존적 조건의 확장, 즉 “하기는 이 생에서 diaspora 아닌 자/어디 한 번 나와 보라고 해”라는 발언을 낳는다. 사실 ‘diaspora’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존적 일반화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적논리에서 이러한 일반화가 부당한 것처럼 다가오지는 않는다. 결국 이러한 일반화로 인해서 타자, 즉 외부를 향했던 시인의 시선은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모쪼록 베트남 처녀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싶다”라는 타자와 거리를 둔 발언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민족’을 떼어내기 위해 ‘설문과 집회’를 개최했다는 소문이 떠오른다. 바야흐로 ‘민족’의 시대가 저무는 순간이다.

‘이주자’가 등장하는 세 시인의 작품은 저마다 다른 재현의 맥락과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주자’의 존재, 즉 특이성 자체를 시화(詩化)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주자의 등장으로 ‘나/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소설과 구분되는 시 장르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만, 이들 시인과 하종오의 시

를 비교해보면 의식적으로 하위주체 자체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시는 독자와의 정서적인 유대를 잃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정당하고도 선(善)한 의도가 예술적인 성취의 불가능성을 가져오는 이 상황이야말로 하위주체의 재현에서 모든 창작자가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이다. 시 장르는 이 딜레마를 자기 고백이라는 장르적 특징을 통해서 돌파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을 결여한 작품의 경우에는 문학적인 긴장감이 떨어져 애초의 의도마저 배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5. 다문화 담론의 문제점들

이방인의 삶을 형상화한 시들을 대할 때마다 일말의 주저감이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왜 이러한 주저의 감정의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방인/이주자를 형상화하는 작업의 무의식에 한국사회의 결여/결핍을 보충하려는 부정확한 욕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환대’의 윤리도,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급진적인 정치실험도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한국인의 중심성(권력)을 재확인하고, 타자의 배제에서 발생하는 모종의 불안감을 윤리적인 포즈로 감싸려는 이중적 기만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이방인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감각적인 세계의 풍경을 그려내는 기존의 시적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요구한다. 또 하나, 이주자/이방인의 문학적 형상화들이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온정과 연민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로 그린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들이 소수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런 까닭에 척도의 권력성이 가장 극명하게 관철되는 곳이 바로 이주자/이방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의 삶이 오직 동정과 연민이라는 구원의 몸짓이 개입해야 할 상처

뿐일지는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형상화의 미학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사실 이주자/이방인의 삶을 형상화하는 작업은 그 문제의식의 정당성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중오의 작업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비평가들의 이 무관심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주제의 무게감이 미학적 수준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내용’이나 ‘형식’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 미학적 수준 또는 시적 긴장감이라는 평단의 요구를 거부할 때, 이방인의 삶을 형상화한 시들이 과연 ‘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¹¹⁾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는 농담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염두에 둔 일종의 자조이다. 국민국가 시대와 달리 노동자와 국민이 겹쳐지지 않는 현대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중적인 태도가 증명하듯이 ‘혈통’을 기준으로 한 인종주의와 언어중심주의가 부활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기이다. 주권권력이 이들 이방인에게 원하는 것, 허락하는 것은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력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때 이들은 법 밖에 있지만, 배제되거나 추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근거로 체제에 포함되는 존재, 방치하면서 관리되는 존재인 호모 사케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은 이들이 ‘노동력’에서 ‘노동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약하나마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삶을 구가한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법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성’을 주

11) 정현종의 「방문객」은 이러한 의심을 피해갈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의 하나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그는/그의 과거와 현재와/그리고/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부서지기 쉬운/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방문객」,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학사, 2008.

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힘은 이동성에서 기원한다. 그래서 폴 비릴리오 같은 철학자는 프롤레타리아의 해양적 기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 권력에 의해 부여된 자리를 지키려는 다수적 욕망은 노동자의 잠재성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는 이주노동자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이주성’이 갖는 함의에 주목한 시를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이것이 바로 다문화에 대한 담론은 무성하지만 정작 시적인 사유가 그 담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연호, 「디아스포라」, 월간 『현대시』2008년 4월호.
- 김사이, 『반성하다 그만둔 날』, 실천문학사, 2008.
- 니콜라스 디폰조, 곽윤정 옮김, 『루머사회』, 흐름출판, 2012.
- 로잘린드 C.모리스 엮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박병섭,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사회와 철학』21집,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1.4, 419~450쪽.
-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 b, 2005.
- 웬디 브라운, 이승철 옮김, 『관용』, 갈무리, 2010.
- 윌 김리카, 황민혁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 장석주, 「이주노동자들」, 월간 『현대시』2012년 2월호.
- 정현중, 『광휘의 속삭임』, 문학과지성사, 2008.
- 조너선 섉스, 서대경 옮김, 『사회의 재창조』, 말글빛냄, 2009.
- 존 베벌리, 박정원 옮김,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 지오반나 보라도리, 손철성·김은주·김준성 옮김, 『테러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4.
- 파트릭 사비단, 이산호·김휘택 옮김, 『다문화주의』, 경진, 2012.
- 하종오,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2004.
- 하종오, 『세계의 시간』, 도서출판 b, 2013.
- 하종오,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보이는창, 2007.

<Abstract>

Traces of foreigners impressed on modern poetry

Ko, Bong-Jun*

As per Karatani Kojin's indication about modern literature, Korean modern literature was formed centering on the trinity of 'country=capital=nation' and has been growing thereafter in the context of a nation-state/a single race. This historical context acted as a basic condition when modern literature imagines community, human, and reality. So to speak, in modern literature, communities occurred within the boundary of the nation and the state, humans were understood as a synonym of citizens or nation, and reality referred to diverse events and accidents occurring in the boundary of the nation and the state. However, these unconscious premises have been rapidly shrinking recently because maintaining physical distances from 'foreigners' has become impossible because of the appearance of neoliberalism and experiences that go beyond the boundary of the state/nation have been generalized. Neoliberalism erased the traces of the nation/state from both 'capital' and 'labor' to trigger their global movements. In this time of the wide ranged global movement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appearance of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and tolerance is never an accident. This paper examined the limitations of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and the meaning of the

* Kyunghee University

scene where the figuration of ‘foreigners-others’ fails repeatedly centering on the figure of foreigners drawn in Korean modern poetry.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subalterns. This paper critically considered discourses on multiculturalism centering of the false nature of the reality termed ‘multiculturalism’. In addition, a conclusion was drawn indicating that modern poetry repeatedly fails in the figuration of the figure of foreigners because ‘foreigners-others’ are kept being perceived as an extension of the identity-entity.

Key Words : traces, neoliberalism, multiculturalism, foreigners-others, representation.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